

揚州藏經院 각판과 한국인 저술판에 관한 연구*

朴 現 圭**

<目 次>

I. 서론	IV. 揚州藏經院 경판의 내용과 특징
II. 揚州藏經院의 역사와 각판활동	V. 揚州藏經院 경판 중 한국인 저술판
III.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의 서지와 내용	VI. 결론

I. 서론

전통 판목은 통상 나무 재질에 조각칼로 글자나 도상을 새겨놓은 판을 지칭한다. 글자나 도상이 새겨진 목판 위에 먹물을 바르고 종이를 덧대어 솔로 문지른 다음 종이를 떼면 인출된 한 면이 탄생된다. 오늘날 국내외에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여러 종류의 목판 또는 목판 인쇄기술이 전해오고 있다.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 고종 때 새긴 고려대장경판(속칭 팔만대장경), 韓國國學振興院에 소장된 조선 유학집안에서 새긴 유교책판, 베트남 달랏(Da Lat) 제4 국립 기록물센터(National Archives Center IV)에 소장된 응우옌(Nguyen) 왕조시대 만들어진 책판이 각각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또 중국 揚州의 揚州中國雕版印刷博物館, 南京의 金陵刻經處, 德格的 德格印經院에서 행해지는 목판 인쇄기술이 세

* 順天鄉大學校 學術研究論文

** 順天鄉大學校 中語中文學科 教授

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양주 지역은 예로부터 목판 인쇄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청나라 말기에 들어와 불교가 누적된 폐단으로 인하여 크게 피폐해지고 잦은 내란으로 사찰과 경관이 많이 소실되자, 불교계 선각자들이 나서 새로운 기치를 내세우고 각경처를 세워 불경 각판에 나섰다. 이 시기에 양주 지역에서 세워진 대표적인 각경처가 江北刻經處와 揚州藏經院이다. 강북각경처판은 1953년에 남경 금릉각경처로 이관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옛 판목을 계속 인출 제작하여 불교기관에 유통시키고 있다. 양주장경원판은 문화대혁명 초기에 廣陵書社로 이관되었다가 2005년에 다시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 南京圖書館에 소장된 한국 관련 고문헌을 조사할 때 양주장경원판 고려 諦觀의 《天台四教儀》를 처음 접했고, 나중에 금릉각경처, 북경각경처 등을 고찰할 때 양주장경원이 소재한 유적지를 답사했다.¹⁾ 2010년대 초반에 민국연간간본 紙本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을 구한 것을 계기로 양주장경원판의 제반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에 나섰다. 먼저 국내외 도서관에 소장된 양주장경원판으로 찍은 각종 지본들을 찾아보았고, 2015년 6월에 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소장된 양주장경원 판목과 《揚州藏經院經書目錄》 판목을 직접 확인했다. 본 논문에서는 양주장경원의 역사와 각판활동,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의 서지와 내용, 양주장경원판의 내용과 특징, 양주장경원에서 새긴 한국인 저서를 살펴본다.

1) 朴現圭, 〈金陵刻經處와 韓國人 編著 經版〉, 《國學研究》 6輯, 2005.6, 473-498쪽.

Park Hyun kyu(朴現圭), 『Early Woodblocks of Buddhist Scriptures of Beijing Kejingchu(北京刻經處) and Books Compiled by Koreans』, 《Woodblocks, Priceless Recorded Heritage,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2014.12, Andong, 111-140쪽.

II. 揚州藏經院의 역사와 각관활동

양주장경원은 현 행정구획으로 중국 江蘇省 揚州市 廣陵區 宛虹橋 58호에 소재한다. 양주 구시가지에 소재한 皮市街 입구에서 남쪽으로 가면 왼편에 1868년(동치 7)에 揚州教案이 발발한 유적지가 보이고, 그곳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宛虹橋 골목이 나온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서편에 민간 가옥으로 바뀐 杜天廟(24號), 동편에 민간 가옥으로 바뀐 衆香庵(37號)의 유적지가 잇달아 나온다. 중향암은 양주장경원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은 또 하나의 각경처이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서편에 廣陵小學 宛虹校區(50號)가 나오고, 학교 남쪽 끝에 나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양주장경원이 나온다. 입구에 2008년 1월에 揚州市文物保護單位 지정 팻말이 걸려있다.

양주장경원은 명 만력연간에 창건했다. 이때 만력제가 ‘萬壽’라는 사액과 불경을 내렸다. 천계연간에 昆廬閣과 戒臺를 세웠다.²⁾ 청 함풍연간에 태평천국의 난으로 소실되었고,³⁾ 1866년(동치 5년)에 許樾身(靈虛)이 나서 사찰을 다시 세웠다.⁴⁾ 광서연간에 內院을 증수했다. 건물 배치는 남쪽을 향하고, 三進門 구조로 이루어졌다. 산문은 3칸인데, 미륵불과 韋馱, 哼·哈 호법신을 모셨다. 본전은 대웅보전으로 석가모니를 모셨다. 후전은 건물 두 채를 붙여 놓았는데, 모두 장관각으로 사용되었다. 서쪽에 齋堂, 客房, 방장실, 寮房, 주방, 암실 등이 있었다.⁵⁾ 장경원 안에 1900년(광서 26)에

2) 高永靑, 《揚州名寺》, 揚州, 廣陵書社, 2005, 53쪽.

3) 1853년(함풍 3)에 태평군이 금릉(남경)을 점거하고 天京이라 부르며 수도로 정했다. 곧이어 청군도 금릉 북쪽을 저항선을 만들어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1856년(함풍 6)에 태평군이 양주를 재차 점거하면서 양주 일대가 커다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곧이어 태평군 내부가 분열되는 天京事變이 일어났다. 1864년(동치 3)에 청군이 태평천국 군사가 주둔했던 남경을 점거했다.

4) 《藏龍集》 동치 13년 張淨極 <(汪善慶傳): 「迄丙寅冬, 靈虛上善復游邗上, 構有藏經禪院, 啓建念佛道場, 其初縑素如雲皈依者衆.」 靈虛는 許樾身의 법명이다. 자는 蔭庭, 호는 息安, 息庵이다.

세워진 《揚州藏經院流通教典記》라는 비석에 있었다. 비문은 王耕心이 짓고, 緣起 부분은 陳重慶이 적었으며, 각자는 冷迎曦가 맡았다.

1949년 중국 공산당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경원 건물은 양주 선전부 소속의 간부들이 거주하는 가옥으로 바뀌었고, 또 인출된 경전 지본을 보관했던 藏經樓(地藏菴) 건물은 宛虹小學(현 廣陵小學 宛虹校區)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인경원의 일부 건물과 장경루만 보존되어 있고, 학교 건물이나 민간 가옥으로 편입된 대웅보전, 재당 등 나머지 건물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모두 멸실되었다.

양주장경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향암은 宛虹橋 37호에 소재한다. 청나라 때 비구니 사찰로 건립되었다. 산문 입구에 ‘古衆香庵’이라는 석판이 걸려 있다. 건물은 길거리를 따라 건설되었다. 속칭 ‘迷樓’이다. 본전에 천수관음을 모셨고, 주방, 齋堂, 客房, 방장실 등이 있었다. 훗날 민간 가옥으로 바뀌었다. 현재 산문, 주방 등 일부 건물만 원형이 크게 훼손된 채 남아있고, 상당수의 건물은 개축으로 훼멸되었다.

《蓮修必讀》〈妙湛大師傳〉은 청말 시기에 양주장경원을 주석하며 각 관활동을 펼친 妙湛大師의 전기이다. 묘담대사는 함풍연간에 崇福寺에서 활동했다. 태평천국군이 항주로 진입하자 양주 維揚으로 피난 갔다. 그 후 허월신의 초청으로 양주장경원을 주석하며 제자 1백여 명과 함께 염불, 방생 등 종교 활동을 펼치고, 또한 경전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각관 작업을 이끌어갔다.⁶⁾

5) 高永靑, 앞의 책, 53쪽. 본전과 후전에 관한 고찰은 양주장경원에 거주한 주민 袁月林(1951년생)에 의해 수정했음.

6) 《蓮修必讀》〈妙湛大師傳〉: 「師諱妙湛, 字眞源, 金陵侯氏子, --- 時正在咸豐間, 兵戈擾攘, 海內鼎沸, 師曰: 藏身懷道, 隱化無方, 一主大刹, 難緣不了, 後避于維揚, 遇許榭身宰官, 請住揚之藏經院, 領衆百餘人, 專以念佛放生刻經典, 勸人求生淨土, --- 同治間金陵克復, 師回故里, 諸相識之家, 深感德化, 莫不投誠, 而揚之妙空大師·清梵和尚·善誠老人, 倡刻藏經, 師爲之南北奔馳, 風雨不避, 募緣襄贊, 不下千金, --- 忽于光緒九年癸未九月初七日, 頓然示疾, 請弟子不延而至者, 百有餘人, 相助念佛, 臨終之際, --- 泰然而逝, 自疾至去, 面光不滅, 世壽六十歲。」

양주장경원에서 언제부터 각판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우선 묘담대사가 양주장경원에 주석한 함풍연간부터 각판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검토해본다. 필자는 아직까지 양주장경원이 함풍연간에 각판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실물을 찾지 못했다. 양주장경원이 병화로 소실된 직후라서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각판 작업에는 많은 물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각판 작업을 행하고 경판을 보관해야할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 묘담대사가 소실되고 남은 양주장경원의 한 곁에서 각공을 데리고 각판 작업을 행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양주장경원이 중건된 이후에야 제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양주장경원은 1866년(동치 5)에 중건되었다.

1860년(함풍 10) 경에 《嘉興大藏經》이 태평천국의 난으로 인하여 전 소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가흥대장경》이 소실된 것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⁷⁾ 동치연간에 양주에서 妙空(속명 鄭學川), 淸梵和尚, 善成老人, 鏡之老人, 허월신, 楊文會 등이 불경 각판에 나서기를 주창했다. 王耕心の 《揚州藏經院流通教典記》에 의하면 양주에서 활동한 불교계 인사들이 양주장경원 묘담대사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각판 활동에 나섰다. 묘담대사는 江北刻經處, 금릉각경처 등 여러 각경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각판 작업과 모금 활동에 나섰다.

청말 양주장경원에서 각판된 청 汪善慶(호 法如)의 《藏龍集》(부록 《病中吟》)이 있다. 《장롱집》 매권 수제 아래에 “武林汪法如著述, 沙門釋妙空編輯, 靈虛許蔭庭, 西來徐壁如付梓, 藏經院同學校”라는 표기가 있다. 책

- 7) 周鈺〈鄭學川傳〉: 「時清軍甫克重城, 瘡痍滿目, 師深痛嘉興楞嚴寺方冊梵典, 毀于兵燹, 遂與石埭楊仁山大師及許靈虛居士·觀如法師, 發願重刻。」(《蕪城懷舊錄》 권3)
- 8) 王耕心《揚州藏經院流通教典記》: 「書本藏經, 遭粵寇之亂, 毀于兵火. 同治初元, 有妙工大師者, 俗家鄭姓, 眞州名諸生也. 以茂才異等, 貫徹禪理, 遂棄儒服, 而著僧衣, 願力宏深, 誓續刻全藏. 而同志淸梵和尚, 善成老人, 鏡之老人, 洎許觀察樾信, 楊君文會并本院主持妙湛法師, 佐助其勞」.

자 편집은 묘공이 맡고, 각관은 許蔭庭(허월신), 徐壁如가 나섰으며, 교감은 양주장경원 동학들이 맡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양주 불교계 인사들이 양주장경원과 깊숙이 연계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후 각관 사업에 나선 여러 인사들이 잇달아 세상을 등지고, 묘공대사도 1883년(광서 9)에 입적했다. 제자 關如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20여 년간 많은 불경을 각관했다. 1899년(광서 25)에 관여가 입적한 이후에 한때 관리 소홀로 판목이 불사리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때 張午橋, 李維之, 程余慶 등이 나서 관여의 동학 貫通法師를 초청하여 사찰을 관장하며 각관활동에 나서게 했다.⁹⁾

양주장경원이 언제까지 각관을 새기는 활동을 했을까? 양정은 양주장경원이 민국 말년까지 각관활동을 했다고 기술했다.¹⁰⁾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에 양주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는데, 이때 양주장경원의 각관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39년 9월에 江都 法藏寺에 소재한 강북각경처의 일부 건물이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강북각경처도 이때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양주장경원판은 원 자리인 양주장경원에 계속 보존되어 있었다. 현재 양주장경원의 장관각(58-7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袁月林(1951년생)은 예전에 양주장경원에서 일어났던 사항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1956년에 선전부 소속의 부친을 따라 양주장경원의 건물에 입주했다. 입주 당시 양주장경원에 定慧和尚과 동자승 1명이 살고 있었다. 정혜화상은 9세에 출가했고, 문화대혁명 때 76세로 입적했다. 1960년대 초에 일본으로부터 양주장경원판을 지본으로 인

9) 王耕心 《揚州藏經院流通教典記》：「刻未十有六七，而首創諸君相繼逝世，其高弟關如，克繼師志，經二十餘年，所刊諸經論總若干部，凡一點一畫，一字一句，罔非先師心血所寄，用底厥成，蓋有功于教典甚巨。光緒二十五年觀公示寂，清規歸地，板几摧燒爲薪矣。于是張午橋觀察，李維之觀察，程處士余慶諸君，竭力以持其後，復請觀公同學貫通法師住持本院，勸募善信，共得番餅一千四百二十元，爲印造諸經之費。」

10) 王澄, 《揚州刻書考》, 揚州, 廣陵書社, 2003.8, 318쪽.

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양주 당국은 장인들을 동원해서 책판을 끄집어내어 인출한 지본을 일본으로 보냈다. 문화대혁명 초기에 판목의 보존 상태가 점차 문제가 생기자 판목과 인출 공구, 항아리 등 제반 물품을 모두 광릉서사로 이관시켰다. 이때 광릉서사로 옮긴 경판이 4~5만 장이다.¹¹⁾

Ⅲ.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의 서지와 내용

민국 16년(1927)간본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은 청말 민국초에 양주장경원에서 인출된 경판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이다. 여기에서 먼저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소장된 《양주장경원경서목록》 판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은 주로 양주 지역에 소장된 고판목을 보존하고, 중국 판목인쇄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세운 박물관이다.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준공했고, 동년 10월에 대외 개방했다. 박물관 개관을 즈음하여 그동안 양주 광릉서사에 보관했던 각종 고판목을 이관해왔다.

2014년 중국 전국 제1차 移動文物 조사에 의하면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불교 경판이 3만여 장 소장되어 있다. 현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경판을 살펴보면 주로 양주장경원판, 衆香庵法雨經房版 등 양주 지역에서 각판된 경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이 양주장경원판이다. 아쉽게도 현 박물관에 소장된 양주장경원 판목의 수량은 원래 양주장경원에서 판각된 판목의 수량에 비해 많은 차이가 보인다. 양주장경원에서 광릉서사를 거쳐 현 박물관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상당수 판목이 일실되었다. 또 현 박물관에 소장된 판목 가운데 부분 훼손된 것도 상당히 많아 앞으로 판목 보수가 필요하다. 본 절에 다루고 있는 《양주장경원경서목록》 판목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판목

11) 2014년 7월 1일에 袁月林과 면담 채집하였음.

은 일실되었고, 일부 판목은 훼손된 상태로 있다.

아래에 紙本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의 서지사항을 적어본다. 서침에 적힌 책명은 「江蘇揚州藏經院揚州佛經流通處有板經目」이다. 판란은 좌우 쌍란이고, 반곽은 17.3×13.0cm이다. 매 반엽당 행수는 10행이다. 판구는 세혹구이고, 어미는 상하단선이다. 판심제는 「藏經院經書價目 幾」이다. 전체 크기는 24.6×15.5cm이다. 권수에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이라는 책명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在皮市街宛虹橋西首」라는 양주장경원 위치가 적혀 있다. 서말에 양주장경원이 책자를 정가로 판매한다는 공지와 「民國十六年丁卯秋八月」라는 각판시기가 적혀 있다. 민국 16년은 1927년(민국 16)에 해당된다.

책자는 총 15장으로 이루어졌다. 서술 방식은 먼저 불경 類目에 따라 분류한 뒤에 각 유목에 들어가 있는 불경을 나열했다. 유목은 華嚴部, 法華涅槃部, 禪宗部, 禮誦部, 法相部, 諸家撰集部, 纂集部, 方等部, 般若部, 秘密部, 大乘戒律部, 大乘論部, 導俗部, 傳記部, 護教部, 淨土經論著述部, 天台教觀部, 梵本, 圖像 등 총 19부류이다. 각 부류 끝에 몇 행을 흑괴로 남겨놓았는데, 이는 향후 새로 새길 경전을 삽입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였다. 경전이 기술되어 있는 조항을 헤아려보니 총 199종이다. 각 조항에는 책명, 권수, 책수, 가격 등의 순으로 적어놓았는데, 이따금 일부 사항이 빠진 것도 있다.

일전에 중국학자들이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의 내용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2003년에 王澄은 민국 16년(1927)간본 《藏經院經價目錄》(즉 《양주장경원경서목록》)에 들어간 불경에 대해 개략적인 사항과 불경목록을 기술해놓았다. 왕징이 기술한 내용을 옮겨보면 서목의 유목은 총 15부류(필자 주: 불경 부분은 총 16부류, 전체는 총 19부류임), 불경 종수는 197종, 권수는 1천 3백여 권, 도상 6종이다.¹²⁾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왕징이 보았던 서목의 출처는 지본이 아니고, 당시 광릉서사에 보관된

12) 王澄, 같은 책, 318-323쪽.

판목을 근거했다. 2015년에 田野는 왕징이 기술한 사항과 양주중국조판인 쇠박물관에 소장된 판목을 근거로 삼아 목록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¹³⁾ 전야가 정리한 목록을 보면 기본적으로 왕징이 기술한 목록과 일치하고, 〈범본〉에 열거된 불경 부분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왕징과 전야가 각각 기술한 양주장경원판 목록은 판목 1장이 누락된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이라 완벽한 목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이 누락한 판목은 지본 《양주장경원경서서목》을 기준으로 제3월~제4월에 해당된다. 누락된 부분은 유목 기준으로 예송부, 법상부, 제가찬집부 등 3부, 또 조항 기준으로 총 27행의 경전이다.

왕징 목록과 전야 목록에 일부 내용이 누락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광릉서사(현 양주중국조판인쇠박물관)에 소장된 판목 《양주장경원경서서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광릉서사에 소장된 양주 지역의 경전 판목으로 총 2종이 있는데, 한 종은 양주장경원에서 새긴 서목 판목으로 잔존 13장이고, 다른 한 종은 衆香庵 法雨經房에서 새긴 서목 판목으로 잔존 1장이다. 중향암 범우경방은 양주장경원 인근인 宛虹橋 37호에 소재한 암자의 각경처이다. 왕징이 《양주장경원경서서목》에 수록된 불경을 고찰할 때 중향암 범우경방에서 간행된 서목의 판목을 《양주장경원경서서목》의 판목으로 잘못 편입시켰다. 뒤이어 전야는 중향암 범우경방 판목의 특징이 양주장경원의 판목과 다른 점을 발견했으나, 끝내 왕징의 목록에 따라 《양주장경원경서서목》으로 잘못 편입시켰다.

여기에서 잠시 중향암 범우경방 서목 판목의 서지사항에 대해 적어본다. 판목 첫 행에 본문 글자보다 조금 크게 “揚州刻經處在本城宛虹橋衆香庵法雨經房”이라고 적혀 있다. 매 반엽당 10행이다. 관심 부분에 어떤 표기도 없다. 이것만 보아도 衆香庵 法雨經房 서목이 양주장경원 서목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본문에 기술된 방식도 양주장경원과 차이가 있다. 衆香庵 法雨經房 서목은 서명, 本數, 가격 등 3부분이 적혀 있는데, 양주장

13) 田野, 〈江北刻經處及清代揚州刻經綜述〉, 《記錄遺產與木板文化》, 《2015年東亞細亞木板國際學術會議》, 서울대, 2015.03.27. 181-217쪽.

경원 서목은 서명, 권수, 책수, 가격 등 4부분으로 권수가 더 첨가되어 있다. 또 책수를 의미하는 부분에서도 衆香庵 法雨經房 서목은 ‘本’이라고 적었는데, 양주장경원 서목은 ‘冊’이라고 적었다.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은 1927년(민국 16) 8월에 각판되었다. 그런데 《양주장경원경서목록》 속에 포함된 책자 가운데 서목의 간행연월보다 늦게 각판된 것을 찾을 수 있다. 《禪門日誦》은 《양주장경원경서목록》 〈禮誦部〉에 수록되었다. 이 책자 말미에 “民國十七年戊辰四月佛誕日菩提閣羅校刊, 板存揚州藏經院”이라는 간기가 있다. 민국 17년은 1928년에 해당된다. 향후 원 판목을 봐야겠지만 양주장경원이 서목에다 《선문일송》을 추가로 새겨 넣었던지 아니면 서목을 만들 때 《선문일송》을 판각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새겼던 것으로 추측된다.

Ⅳ. 揚州藏經院 경판의 내용과 특징

본 절에서는 양주장경원 경판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양주장경원 판목 3만여 장이 소장되어 있지만 잔결된 판목도 꽤나 있고,¹⁴⁾ 또한 아직까지 조사 정리한 보고서를 나오지 않아 이것을 기초 자료로 삼기가 어렵다. 따라서 환원방식, 즉 지본 《양주장경원경서목록》에 기술된 경전의 지본 책자를 조사하여 양주장경원 경판의 제반 모습을 역으로 살펴보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재 국내외 여러 도서관에 양주장경원에서 인출된 지본 책자가 꽤나 많이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양주장경원판 지본 책자를 조사한 종수가 총 74종인데, 이것은 《양주장경원경서목록》에 열거된 경전 199종에 비해 약 37%에 해당된다.

양주장경원에서 가장 빨리 간행된 책자는 어떤 것일까? 《양주장경원경서목록》에 양주장경원과 인연이 깊은 汪善慶(法如)의 《藏龍集》(부록 《病

14) 田野, 〈江北刻經處及清代揚州刻經綜述〉, 앞의 서지, 185쪽.

中吟》이 보인다. 왕선경은 질병으로 1백여 일간 양주장경원에서 요양할 때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병중음》을 지었다.¹⁵⁾ 왕선경이 돌아가자 양주 불교계 인사들이 나서 《장룡집》을 각자 출판하였는데, 이때 양주장경원 동학들이 교감 작업에 참여했다. 《장룡집》의 서수에 1874년(동치 13)에 梁淨一의 〈紋〉와 張淨極의 〈(왕선경)傳〉이 있다. 만약 《장룡집》이 서문의 작성년인 1874년(동치 13)에 각판되었다고 한다면 양주장경원에서 가장 빨리 각판된 책자로 꼽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다른 양주장경원판과 달리 책자에 각판연도가 명기되지 않아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양주장경원판 가운데 간행기록이 명확하고 연도가 가장 빠른 책자는 1875년(광서 1)에 새긴 《大方廣佛華嚴經離垢地章》과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이다. 두 경전은 합본 각판되었다. 책자 말미에 “三寶弟子善成妙湛, 月航, 藕香, 一淨, 敬刻此經, 願與法界衆生同生安樂國, 同菩提心, 同修普賢行, 同圓一切種智. 光緒元年夏仲, 揚州藏經院謹識”이라는 간기가 있다. 광서 원년은 1875년에 해당된다. 각판자 묘담은 양주장경원 주지였고, 月航, 藕香, 一淨은 양주장경원에서 활동한 승려로 추측된다.

1875년(광서 1) 이후 양주장경원은 활발하게 각판활동을 전개했다. 《양주장경원경서목록》에 열거된 경전은 총 199종이다. 1875년(광서 1) 이후부터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이 작성된 1927년(민국 16)까지의 경전은 매년 평균 3.8종씩 각판되었다.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이 작성된 1927년(민국 16) 이후에도 각판활동은 계속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大佛頂首楞嚴咒》는 1929년(민국 18)에 각판되었다. 책자 말미에 “民國己巳年四月佛誕日, 板存揚州藏經院”이라는 간기가 있다. 민국 기사년은 1929년에 해당된다.

이와 경우가 좀 다르지만 다른 사찰에서 양주장경원판을 증각한 책자가 있어 흥미롭다. 《妙法蓮華經》은 1932년(민국 21)에 上海 法藏寺가 양주

15) 《病中吟》〈自記〉: 「余寓揚州藏經禪院, 自冬至春, 一病百日餘矣. 病中無事, 常口占一絕以自遣, 日復一日咏成百首, 錄而存之, 名曰病中吟.」 본문말: 「同治庚午二月望日書於揚州藏經院之大圓鏡室.」 동치 경오년은 1870년(동치 9)에 해당된다.

장경원판을 중각한 책자이다. 책자 말미에 “民國廿一年十二月上海法藏寺興慈經募重刻”이라는 간기가 있다. 또 《合訂天台三聖二和詩集》은 1931년(민국 20)에 상해 법장사가 양주장경원판을 중각한 책자이다. 책자 서수에 1931년(민국 20)에 邱興慈가 쓴 〈附重刻和天台三聖詩序〉가 있고, 본문 말미에 “上海法藏寺募刻, 揚州藏經院藏板”이라는 간기가 있다.

다음으로 양주장경원판이 어떤 양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크게 제본 모습에 따라 절첩본과 방책본으로 나뉜다. 《양주장경원경서목록》 중 〈梵本〉에 속한 책자는 절첩본으로 만들어졌다. 절첩본 책자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다. 책자 앞쪽에 불상도를 새겨놓았고, 뒤쪽에 위타보살을 새겨놓았다. 본문의 판란은 상하쌍란이고, 판란의 상하는 22.0cm 정도이다. 매 반첩 당의 행자수는 5행 17자이다. 책자 안쪽은 병풍처럼 접어놓았고, 앞뒤 표제지는 두꺼운 감색 천으로 덮어놓았다.

《양주장경원경서목록》 중 〈범본〉과 〈도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류에 속한 책자는 방책본으로 만들어졌다. 방책본 책자는 당시 강남 불교계에서 정한 기본 양식에 따랐다. 판란은 좌우쌍란이다. 반곽 크기는 18.0×13.1cm 좌우이다. 글자는 송서체이다. 계선은 有界이고, 본문은 10행 20자이다. 판구는 세חק기이며, 어미는 무어미·상하단선이다. 판심제는 상하단선 사이에 기술했다.

상기 방책본의 기본 양식은 1868년(동치 7) 8월에 양문회, 허월신, 楊西華, 余蓮邦 등 15명이 제정한 《募刻全藏章程》 10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각전장장정》에서 정한 방책본 양식을 보면 행수, 자수, 판면 크기는 祖定師가 각관한 《華嚴經》 등 경전을 준칙으로 삼고, 글자는 해서체에서 송서체로 바꾸었다.¹⁶⁾ 금릉각경처, 강북각경처, 여교각경처 등에서도 모두 이 준칙에 따랐다.

16) 동치 7년 8월 양문회, 허월신, 楊西華, 余蓮邦 등 15명 《募刻全藏章程》: 「刊全藏, 均用書冊本, 以便刷印流通. 其行數·字數·版式或大小, 悉照祖定師刻《華嚴》等經爲則, 但易楷字爲宋字. 此本募疏章程, 卽是刻經式樣」(金陵刻經處 武延康 제공, 《楊仁山居士年譜》(초고본), 64쪽).

양주장경원판을 조사해보면 전반적으로 기본 양식을 준수하나, 가끔 기본 양식에서 벗어난 책자가 일부 보인다. 먼저 판면에서 기본 양식인 좌우쌍란, 무어미·상하단선에서 벗어난 책자를 들어본다. 1875년(광서 1)에 각판한 합본 《大方廣佛華嚴經離垢地章》과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은 사주쌍란이고, 상혹어미이다. 이 합본보다 1년 전(1874년: 동치 13)에 각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릉집》, 1년 후(1876년: 광서 2)에 각판된 《御選妙覺普度和聖寒山大士詩》, 《御選圓覺慈度舍聖拾得大士詩》, 《中峰淨土詩》는 모두 기본 양식, 즉 좌우쌍란, 무어미·상하단선을 준수하고 있다.

또 본문 행수가 기본 양식 10행에서 벗어난 책자가 보인다. 1919년(민국 8)에 각판한 《釋教三字經》의 행수는 7행이다. 1896년(광서 29)에 각판한 《妙法蓮華經》, 1904년(광서 30)에 각판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의 행수는 8행이다. 이밖에 도상이 있는 책자는 도상 관계로 기본 양식에서 변형되었다. 또 기본적으로 내표제를 따로 만들지 않으나, 간혹 내표제를 부착해놓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靈峰滿益大師選定淨土十要》, 《西方公據》, 《菜根譚》에는 당시 명필가들이 쓴 내표제를 부착해놓았다.

양주장경원판은 통상 책자 말미에 공덕자 명단과 시주금, 자수, 서침, 판가, 인출 등 제반 사항과 비용, 간기 내역을 자세히 기술해놓았다. 공덕자가 내놓은 시주금은 해당 경전의 각판에 소요된 제반 경비로 전부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주금이 남은 경우에는 다른 경전을 각판하는 데에 전용했고, 이와 반대로 부족할 때는 양주장경원이나 주변 공덕자가 부족한 경비를 충당했다.

간기 내역은 통상 각판연월, 양주장경원 식으로 기술해놓았다. 드물지만 내표제에 간기 내역을 기술해놓기도 했다. 양주장경원 표기는 ‘板存揚州藏經院’ ‘揚州藏經院存板’이 가장 많이 보이고, 간혹 ‘揚州藏經院謹識’, ‘揚州藏經禪院’, ‘揚州藏經禪院尾塵室’ 등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다. 가장 특이한 것은 《靈峰滿益大師選定淨土十要》에 들어간 ‘廣陵藏經禪院存版’으로

지역명을 廣陵으로 변경해놓았다.

인출 부수는 일정치 않으나, 통상 1백부~2백부를 찍었다. 인출 부수가 가장 많은 책지는 시주자의 청원으로 1천부를 찍은 《釋教三字經》이다.¹⁷⁾ 이밖에 《蓮修必讀》은 493부, 《地藏菩薩懺願儀》는 3백부, 《唯識開蒙問答》은 220부로 평균 이상이다. 이와 반면에 《妙法蓮華經》,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小摺法華經》 등은 20부로 가장 적다. 간혹 새로운 각관을 인출할 때 기존 판각을 다시 인출한 경우가 있다. 신각본 《蓮修必讀》을 인출할 때 이전에 각관한 《觀經圖頌》을 120부, 《九品蓮臺》를 36부, 《龍舒淨土文》을 20부, 《萬善同歸》를 20부를 함께 인출했다.¹⁸⁾

V. 揚州藏經院 경판 중 한국인 저술판

양주장경원판에는 한국인이 편찬한 책자가 2종이 들어가 있다. 한 종은 고려 諦觀의 《天台四教儀》이고, 다른 한 종은 고려 知訥의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이다. 제관은 고려 천태종 고승이다. 960년(광종 11)에 고려 광종의 명을 받아 천태종 서적을 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건너갔다. 그 후 천태 螺溪寺에 나가 천태종 제15대 조사 義寂의 가르침을 받고 경전 연구에 몰두하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입적했다. 나중에 그의 유품에서 《天台四教儀》가 발견되어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

양주장경원판 지본 《천태사교의》는 선통 1년(1909)에 《心終心要》, 《天台八教大意》와 합본 각관되었다. 판란은 좌우쌍란이고, 반곽 크기는 18.1×13.4cm이다. 유계이고, 10행 20자이다. 판구는 세혹구이고, 어미는

17) 《釋教三字經》 간기: 「安徽無爲居士, 錫周陳性良, 法名了圓, 仝妻胡氏, 法名慧覺, 出資重刻, 敬送一千本, 以結法緣。」

18) 《蓮修必讀》 간기: 「印《觀經圖頌》一百二十本, 洋十二元, 合錢十四千四百文. 印《九品蓮臺》三十六本, 錢四千六百文. 印《龍舒淨土文》二十本, 二千文. 印《萬善同歸》二十本, 三千二百百文. 其餘印此書四百九十三本, 每本九十文。」

무어미·상하단선이다, 판심제는 「天台四教儀 幾」(양선간)이다. 책자 말미에 南潯 劉安濤의 시주로 간행된 기록이 적혀 있다. 비용은 총 洋 51원 6각이다. 이것을 세분해보면 圈字를 포함한 자수가 4,931개로 洋 44元 9角, 料線에 5원 1각, 서첩 1장에 洋 1각, 板架 1장에 洋 1원 5각이 각각 들어갔다. 간기 기록은 “宣統元年秋八月, 揚州藏經院謹識”이다.¹⁹⁾ 현재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원 판목 7장이 보존되어 있다. 소장번호는 B40이다. 원판의 가로는 26.4cm, 세로는 17.5cm, 두께는 1.6cm이다.

지눌의 속성은 鄭氏이고, 자호는 牧牛子이며, 시호는 普照禪師이다. 定慧結社를 선포하고 九山禪門을 曹溪宗으로 통합시켜 고려 선종을 중흥시켰다. 《수심결》은 《眞心直說》과 더불어 일찍이 중국 대륙으로 흘러가 1602년(명 만력 30) 가흥대장경간본, 1888(청 광서 14) 李樂元刊本, 1914년(민국 3) 금릉각경원간본, 간년미상의 강북각경차간본 등 여러 중국 간본이 나왔다.

양주장경원판 지본 《고려국보조선사수심결》은 민국 5년(1916)에 《誌公惺語》와 합본해서 간행되었다. 판란은 좌우쌍란이고, 반곽 크기는 18.1×13.4cm이다. 유계이고, 10행 20자이다. 판구는 세혹구이고, 어미는 무어미·상하단선이다, 판심제는 「修心訣 幾」(양선간)이다. 책자 말미에 시주자 명단과 금액을 담은 〈功德芳名〉과 간기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시주자는 葉泉老和尚, 慧眞師, 慧照師 등 17명이고, 시주 총액은 洋 30元 8角이다. 각자수는 圈字를 포함해서 10,959개이고, 인출부수는 2백부이다. 소요된 비용은 洋 21元이며, 남은 비용은 洋 9元 8角이다. 간기 기록은 “民國五年四月佛誕日刊成, 揚州藏經院存板”이다.²⁰⁾ 현재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

19) 《天台四教儀》 간기: 「浙江南潯鎮劉安濤敬刻/《天台四教儀正文》, 《心終心要》, 《天台八教大意》, 共三卷, 連圈計字貳萬四千九百三十一個, 合洋四十四元九角, 又料線合洋伍元一角, 書簽壹條洋壹角, 板架壹張洋壹元五角, 總共計洋伍十壹元六角. 宣統元年秋八月, 揚州藏經院謹識。」

20) 《誌公惺語》 간기: 「《誌公惺語》, 《修心訣》功德芳名. 葉泉老和尚二元, 慧眞師一元, 慧照師一元, 蓮清師一元, 方成師八角, 蓮脉師二元, 慧順師八元, 靈珠師一元, 本慈師六元, 麗雲師一元, 圓慧師一元, 果眞師一元, 性志師一元, 滿

에 원 판목 7장이 보존되어 있다. 소장번호는 B541이다. 원판의 가로는 26.8cm, 세로는 18.2cm, 두께는 1.4cm이다.

Ⅵ. 결 론

양주장경원은 청말 민국초에 양주 지역에 활동한 불경 각경처 중의 하나이다. 당시 불교계 인사들이 침체된 불교를 진작하기 위해 내란으로 소실된 경판을 복원하는 각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오늘날 강소성 揚州市 廣陵區 宛虹坊 58호에 소재한다. 명 만력연간에 창건되었다. 청 함풍연간에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동치연간에 중건되었다. 중국 공산당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간 가옥과 宛虹小學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상당수 건물은 이미 훼손되고 없고, 판목을 보관한 장판각과 부속 건물, 인출된 경판을 보관한 장경루(지장암) 건물만 남아 있다.

청 淸海의 <妙湛大師傳>의 기록에 의하면 청 함풍연간에 양주 維揚으로 피난을 온 묘담대사가 허월신의 초청으로 양주장경원에 주석하여 불교 전파와 각경 사업을 행했다. 그 후 묘공대사, 청범화상, 선성노인, 허월신, 양문회 등 선각자들이 나서 각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후 각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1927년(민국 16)까지 매년 평균 3,8종의 책자를 내놓았다. 일본군이 양주지역으로 침입한 1939년(민국 28) 직후에 각관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주장경원 판목은 계속 원 자리에 보존되어왔다. 1960년대 초반에 일본의 요청으로 판목을 지본으로 인출한 적이 있었다. 문화대혁명 초기에 판목과 인쇄 물품을 광릉서사로 이관했다. 이때 옮긴 판목의 숫자는 4~5만장이라고 전해온다. 현재 양주 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경판 3만 여장 가운데 양주장경원판이

中師一元, 本立師一元, 隆暉師一元, 嚴開師一元, 共三十元零八角, 敬刻此書.
連圈共計字一萬零九百五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항암 범우경방판이 일부 들어가 있다.

《揚州藏經院經書目錄》은 1927년(민국 16) 8월에 각판되었다. 서침은 「江蘇揚州藏經院揚州佛經流通處有板經目」이고, 총 15장이다. 이 책자에 수록된 유목은 총 19분류이고, 조항수는 총 199종이다. 현재 양주중국조판 박물관에 소장된 판목 《양주장경원경서목록》은 제3월과 제4월에 해당되는 판목 1장이 결락되었고, 또 결락된 부분에 양주장경원과 이웃에 소재한 중항암 범우경방의 《揚州刻經處在本城宛虹橋衆香庵法雨經房》 판목 1장으로 잘못 대체해놓았다.

필자는 국내외 도서관에 소장된 지본 양주장경원판을 통해 원 판목의 판본사항을 규명하는 환원 작업을 펼쳤다. 필자가 조사한 양주장경원판 가운데 가장 빠른 판목은 1874년(동치 13) 서문이 있는 왕선경의 《藏龍集》이다. 다만 이 책자에 다른 양주장경원판과 달리 간기가 보이지 않는다. 간행연도가 명기된 판목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1875년(광서 1)에 새긴 《大方廣佛華嚴經離垢地章》과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이다.

양주장경원각 절첩본의 기본 양식은 상하쌍란, 매 절첩당 당 5행 식이고, 방책본의 기본 양식은 좌우쌍란, 무어미·상하단선이다. 양주장경원에 소장된 경판 가운데 한국인 편찬 저서판으로는 총 2종이 있는데, 한 종은 1909년(청 선통 1)에 각판한 고려諦觀의 《天台四教儀》이고, 다른 한 종은 1916년(민국 5)에 각판한 고려知訥의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이다. 현재 양주중국조판인쇄박물관에 각각 원판목 7장씩 보관되어 있다.[燁琳之樂室, 乙未陰花月廿七日]

< 참고문헌 >

- 董玉書, 《蕪城懷舊錄》,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2.
 高永靑, 《揚州名寺》, 揚州, 廣陵書社, 2005.
 羅琿, 《金陵刻經處研究》,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0.

田野, 〈江北刻經處及清代揚州刻經綜述〉, 《記錄遺產與木板文化》, 《2015年東亞細亞木板國際學術會議》, 서울대, 2015.03.27.

王澄, 《揚州刻書考》, 廣陵書社, 揚州, 2003.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printing blocks and the content containing within the blocks of Yangzhou Cangjing yuan(Holding Scripture Depository). Yangzhou Cangjing yuan was the place for carving block for printing Buddhist scriptures in Yangzhou during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 of China. It is located at Wanhongfang(宛虹坊) 58hao in Guanglingqu(廣陵區), Yangzhou(揚州), Jiangsu Province(江蘇省), People'S Republic Of China. Cangbange and Cangjinglou still exist. It is said that a carving project was undertaken in the reign period of Xianfeng, but we can not still find its substance. The organization began the activity of carving in a full-scale from 1874(the 13th reign year of Tongzhi) and stopped entirely in 1939(the 28th reign year of Republic of China) when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forty thousand to fifty thousand sheets of printing blocks stored in Yangzhou Cangjing yuan were transferred to Guangling shushe(廣陵書社) in the early days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moved again in 2005 to Yangzhou Zhongguo diaoyban yinshua bowuguan(Yangzhou Museum of Chinese Carving Printing揚州中國雕版印刷博物館). Now Yangzhou Zhongguo Diaoban yinshua bowuguan has thirty thousands sheets of Buddhist scriptures. It is presumed that most of them are the edition of Yangzhou Cangjing yuan and those of Zhongxingan(衆香庵版) are partly included.

《Yangzhou Cangjing yuan jingshu mulu(揚州藏經院經書目錄)》 was carved on August 1927(the 16th reign year of the Republic of China). Two kinds of books written by Korean are included in the edition of Yangzhou Cangjing yuan. One is 《Cheontae sagyoui(天台四教儀)》 by Chegwan(諦觀) of Goryeo, which was carved in 1909(the 1st reign year of Xuantong). The other is 《Goryeoguk Bojoseonsa susimgyeol(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by Jinul(知訥) of Goryeo, which was carved in 1916(the 5th year of Republic of China).

Key Words : 목판(Carving Block for Printing), 揚州藏經院(Yangzhou Cangjing yuan), 衆香庵版(Zhongxinganban) 法雨經房(Fayu jingfang), 妙湛大師(Miaozhan), 天台四教儀(Cheontae sagyoui),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Goryeoguk Bojoseonsa susimgyeol)

